



# ‘빈 용기 수거 · 안전한 농약보관’ 사용자가 만드는 제2의 안전성

농업인이 첨단 자재인 농약사용을 망설이거나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만큼 불행한 현실은 없다. 농업인은 올바른 사용 및 보관법을 준수하여 대소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소비자는 농업 여건과 방제해야 하는 현실을 시인하고 이해해야 한다.

자연섭리가 오묘해서인가, 유수와 같은 세월 때문인가. 어느새 수확의 계절이다. 작물에 따라 수확시기가 천차만별이고 진화된 농법 등으로 사계절 수확이 가능하지만, 통념으로는 이견 없는 수확의 계절이다.

때론 이번엔 짐짓 놀라기도 하지만, 끝내는 자연이 승리한다. 그래서 자연은 게으름에는 빈손을 내어 주지만, 부지런함에는 단 한번도 대가를 쥐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온갖 종류의 장애물로 인간의 의지와 욕구를 시험한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 일생을 날 수 없듯 농작물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작물은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물을 쉼 내어 줄 수 없는 존재이며 건강히 자생할



박 학 순  
한국적물보안협회 홍보부장

수도 없는 나약한 의존의 식물이다. 종자와 농법이 진일보하고 여러 물리적 힘이 가세해 보지만, 농작물을 노리는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기란 언감생심이다.

## 문명 이기, 소중히 다루어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농작물을 해하는, 이른바 병해충 및 잡초로 나타나는 무리들의 종류만도 1,500여종을 상회한다. 이들은 매사 끈끈한 동료가 되어 호시탐탐 농작물을 노린다. 한 톨이 아쉬운 소중한 농작물을 방치한다면 그 농작물은 이미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다. 이들은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노심초사하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즐기는 듯 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들의 무단침입과

약탈을 막아주는 농약의 종류가 많다고 불평이다. 농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단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건 오해이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하면 오히려 종류가 적어도 한참 적다. 1,500여종을 상회하는 병해충 및 잡초에 비하면 오히려 등록 농약이 없어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하는 예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못된 짓을 막아주고 혼내주는 자재가 바로 첨단 정밀화학 자재인 농약이다. 일부는 근거 없이 첨단 자재를 폄훼하고 기피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험로(險路) 걷기를 자청할 뿐이다. 목표지점 가기를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를 선택한 것은 자유이나, 그렇다고 사고가 두려워 걷기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해성 기준을 잘못 잡아도 한참이나 잘못 잡았다. 소수이지만, 굳이 그런 길을 걸겠다면 그건 운명이다.

농약이 사람이라면 참으로 억울할 것 같다. 그토록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자신을 향한 질시와 반목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려는 질긴 타인의 시선이 고을 리가 없을 것 아니겠는가? 이름이 문제라면, 개명을 해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지난 7월에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에 이르렀음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첨단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는 또 얼마나 될

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동차로 인한 유익성이 더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수단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자체의 안전성을 탓하지도 않는다. 성숙된 운전의식과 문화, 운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하면 그만 아니겠는가?

농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 농약 그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고 효능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턱 없이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신해 준다 해도, 자신을 다루는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극히 일부에서의 오남용의 사례를 개선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한다면 농약은 문명 이기(利器)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빈용기 수거, 다양한 혜택 일구어

영농철 무던히도 애쓴 농약의 운명은 수확기 이후 들녘에 남겨지느냐, 아니면 주인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안전한 곳에 처리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다. 그러므로 농약을 사용하고 난 뒤 빈 용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및 수로 등에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소중한 자원의 낭비이며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 후 빈 용기는 절대로 버리지 말고 모두 모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무상제도를 거둬하던 농약공병수거제도는 1987년부터 정부와 업계의 관심 속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 그동안에는 폐농약봉지류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각되는 등으로 인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폐농약봉지류수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들어 동 사업은 화룡점정(畫龍點睛) 되기에 이르렀다.

용기별 수거비 지급기준을 보면 △유리병이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 △봉지류 1,380원/kg이며 병류는 재활용업체에, 봉지류는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수거 처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농약봉지류 수거사업이 시행 초기로 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 안전한 농약보관 또다른 안전성 확보

또한 농약의 고유목적과는 무관하게 쓰다 남은 농약의 부적절한 처리나 잘못된 보관 관리에 기인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실이나 부엌에 잘못 보관중인 가루농약을 밀가루로 잘못 알고 빈대떡이나 부침개 등을 만들어 먹고는 중독사고를 일으킨 사례나, 쓰다 남은 농약을 콜라나 사이다, 박카스병에 잘못 보관해오다 이를 물로 오인한 노인들이 커피를 끓여 마시다 귀중한 인명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예가 그것이다.

이는 분제농약의 표기내용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색소나 악취·구토제 등을 넣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진력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물론 기대에 정면 배치되는 사고임에 틀림없다.

물론 정부와 우리 업계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농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향과 보폭을 맞춰 나가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에도 비난의 화살이 어김없이 농약자체의 안전성으로 귀결된다면 내심 동의하기 어렵다. 과속과 신호 미준수, 차량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마치 자동차 자체의 결함인 양 규명이 이루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가에서는 특히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보관을 잘 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먼저, 농약은 전용보관 상자를 만들거나 현 캐비닛 등을 이용, 자물쇠 장치를 하여 보관함으로써 어린이나 글을 모르는 노약자, 술에 취한 사람 등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약 보관상자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의약품 또는 식료품,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분하여 자물쇠를 채우고 보관해야 한다.

## 수확철 이후 농약사고 예방 위한 제언

농약은 전용보관 상자나 현 캐비닛 등을 이용, 자물쇠 장치를 하여 보관해야 하며 보관상자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중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농약은 본래의 농약용기에 넣어 라벨(포장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용도별 구분과 함께 최소한 상표명 또는 품목명이라도 적어 보관토록 한다.

넷째, 특히 비선택성 제초제 등 제초제와 고독성농약은 다른 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오용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보관중인 농약은 만의 하나라도 용기의 부식이나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쓰다 남은 농약은 잘못 사용하거나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약을 본래의 용기가 아닌 박카스병 또는 콜라, 사이다병 등과 같은 다른 병에 넣어 보관하면 어린이나 술 취한 사람, 글을 모르는 노약자 등 사리를 분명히 판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음료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약을 마루 밑이나 헛간 등에 그냥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안전한 농약보관은 사용자가 만들어 내는 또다른 안전성 확보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하고 있지만 안전 먹거리에 대한 불안 또한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이다. 농업인이 첨단 자재인 농약사용을 망설이거나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만큼 불행한 현실은 없다. 이 같은 현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이 올바른 사용 및 보관법을 준수하여 대소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농업 여건과 방제해야 하는 현실을 시인하고 이해해야 한다. 농약의 효능이나 공헌을 농가만 알아서도 안 된다. Y